

2022년 10월 9일 “예수님의 비유(15) 부자와 나사로”(눅 16:19-31)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핵심은 백성들의 성숙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삶에 어떤 내용을 채우면 좋을지 오늘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호사를 누리다 죽어서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하나님이 돕다’는 뜻)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불타는 고통 속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24-26 절).

나사로는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가난한 자’를 상징합니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마 5:3 ‘마음이 가난한 자’ = 눅 6:20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14 절)처럼 경건한 척,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삶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2]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이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주님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낙원을 의미합니다(23:43). 낙원은 재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죽은 성도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과 지옥의 최고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주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서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27~28 절).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모세와 예언자 말을 들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29 절).

[3] 죽음 후 낙원에 거하는 비밀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성경)을 읽고 따르면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29, 31 절).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기적을 보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상이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는 본질과 내용을 현상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성경적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교회 비전)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에 합당한 길을 찾게 해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뜻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시고 말씀을 심령에 채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살아생전 내가 행한 무엇이 죽음 후 천국에 합당하게 할까요?
2.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나를 아는 것(교회 표어)은 나와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까?